

“노마스크로 봄 만끽하자” 광주·전남 상춘 인파

명승지·유원지·사찰 등 인파 북변...한식 앞두고 성묘객도 늘어 20도 웃도는 완연한 봄 순천정원박람회도 탐방객 발길 이어져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봄을 맞은 4월 첫 주말, 광주·전남지역 명승지와 유원지·사찰 등은 상춘인파로 크게 북받았다. 특히 광주·전남의 벚꽃이 피는 명소에는 빨리 찾아온 봄 날씨에 일찍 만개한 벚꽃이 떨어지기 전에 꽃놀이를 즐기기 위한 나들이객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광주·전남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4월 첫 주말인 지난 1일과 2일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넘기면서 행락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2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25.4도에 달했고, 화순·나주·담양·영암 등에서는 25도 이상의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낮 최고기온이 20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졌다. 무등산 국립공원에는 지난 1일부터 2일 오후 5시까지 총 2만 800여명의 등산객이 몰려들어 산 곳곳에 완연한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우치동물원이 함께 있는 광주패밀리랜드에도 가족단위 관람객이 방문해 동물을 구경하거나 놀이시설을 타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외의 장성 백암사와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영암 월출산 등 도내 유명 사찰 및 산·계곡 등에도

산뜻한 원색차림의 상춘객들이 몰렸다. 또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묘지 등 광주와 전남도 내 묘지 곳곳에는 오는 6일 한식을 앞두고 별초를 하거나 미리 성묘 하는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특히 벚꽃이 만개한 주요 행락지에는 상춘인파로 크게 북받았다. 상춘객들의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꽃놀이에 나선 행락객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나같이 밝은 표정의 얼굴이었고 발걸음도 경쾌해 보였다. 광주시 서구 운천 저수지·나주 한수제·화순 동구리 호수공원·광양 백운대 등에는 일찍부터 벚꽃을 보기 위한 상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나주 한수제를 찾은 조현민(30·서구 화정동)씨는 “오랜만에 직장하고 도심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힐링을 하기 위해 나들이를 나왔다”면서 “벚꽃도 보고 나주 체육공원에 핀 노란 유채꽃도 보고 완연한 봄 기운을 받았다”고 웃어보였다. 지난 1일 벚꽃 명소인 광양시 백운대를 방문한 박소희(여·24·순천시 해룡면)씨는 “예년보다 꽃이 일찍 핀다고 해서 벚꽃 구경을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면서 “미세먼지가 있어서 집을 나설 때는 조금 걱정이 됐지만, 막상 활짝



한식을 앞둔 2일 한 가족이 광주시 남구 화정동의 선산을 찾아 제사를 올리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핀 꽃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성묘객과 상춘객들이 대거 도심에 빠져나가면서 오후 늦게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광주 인근 주요 국도는 몰려드는 나들이 차량들로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장성군 남면에 핀 벚꽃을 보기 위해 드라이브를 간 지주연(여·27·장성군 동화면)씨는 “도로 양옆으

로 서있는 벚꽃 길을 지나가면서 벚꽃 터널을 지나는 듯 한 기분이 느껴졌다”면서 “차량정체가 심해 조금 아쉬웠지만, 정체되는 만큼 꽃을 오래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31일 문을 열자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 발길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2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임채린(여·24)씨는 “타지에서 일하다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는데, 때 마침 정원박람회가 다시 개막해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다”면서 “오늘처럼 날씨가 좋으면 매주 순천 뿐만 아니라 전남에 꽃명소나 축제를 여는 곳이 많아서 친구와도 함께 나들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공사 중’ 함평 베르힐CC ‘불법 라운딩’ 논란

관청 허가없이 10여개 팀 참여 인근 주민 등 안전사고 우려 골프장 측 “코스 점검 차원” 해명

준공이 나지 않은 함평의 한 골프장에서 행정절차를 거치며 시범라운딩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함평군과 골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중인 함평 베르힐CC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반인 등 알 수 없는 골퍼들이 라운딩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일과 2일 10여 개 팀을 구성해 공사현장 출입(차량 등) 통제 안내를 한 상황에서 팀별로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면 골프장이 준공에 앞서 (시범)라운딩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라운딩은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함평군 체육시설 운영 담당자는 이 골프장의 시범라운딩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프장 대표는 “골프장 정식 영업 전

코스 관리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전문가와 직원, 일반인들과 시범라운딩을 했다”며 “코스별 특성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시범라운딩 형식으로 일부 운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골프장 주변 지역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골프장 인근 주민 A씨는 “일주일 전부터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골프장에 승용차량으로 출입하는 것을 목격했고, 실제 골프장 인근 농지에 떨어진 골프공도 봤다”며 “골프장 측이 운영을 시작했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민과 전문가들은 안전도 미작용자 출입금지

를 안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라운딩과 관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골프장 체육시설에서는 적법한 안전관리 직원이 필요하며 사용 내방객 안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와 부대 시설의 점검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골프업계 관계자는 “시범라운딩이 법적 용어도 아닌 만큼 골프장 측이 시설을 완공하고 나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조건부 등록이나 정식 등록을 하고 라운딩 하는 것이 골프장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름을 알리는 유익한 길”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광주·전남 경찰청은 이달 30일까지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할 경우에는 형사책임

과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종료 이후 5월 한 달 동안에는 불법무기류 신고 집중 단속기간이 운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81.3일...광주·전남 ‘최장 가뭄’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 4월 최대 기온·6월 최저 기온 광주 하루에 32.9cm 적설량 “기후 위기 상황 다가온 듯”

광주에서는 지난해 2월(2.7mm)과 5월(0.4mm) 강수량이 기상관측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4월에는 역대 최대 기온(22.6도)과 6월에는 역대 최저기온(20.1도)을 보였다. 유례 없는 가뭄 상황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이 기상관측 이래 역대 가장 기상가뭄 발생 일수를 기록한 것도 확인됐다. 기상청은 국무조정실 등 24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30일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의 이상기후의 발생과 지역별·분야별 피해 현황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광주·전남의 기상가뭄(6개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일정량 이상 적은 상황) 일수가 281.3일로 기록됐다. 이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4년 이래 최장 기간이다.

이같은 남부지방에 최악의 기상가뭄이 길어진 이유는 지난해 봄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오래 머물러 비가 적게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영향이 지난해 연말에 이어 올해 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광주에서는 지난해 23일 하루 최소 적설량(하루동안 내린 눈의 최대 깊이)이 32.9cm로 역대 2번째로 많은 눈이 쌓였다. 순천과 여수에서는 1~2월 중 강수량(0.0mm)은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순천에서는 지난해 3월 16일 일 최고기온이 23.6도를 보여 역대최고치를 달성했다. 목포에서는 지난해 9월 6일에는 초속 31.7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일 최대순간풍속 역대 2위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유회동 기상청장은 “남부지방의 가뭄 등을 경험하며 이제는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상황이다 다가왔음을 깨닫게 된 한 해였다”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알베르 카뮈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